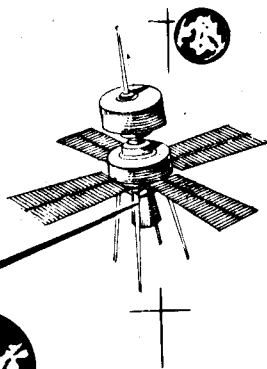


# 양계 안테나



南斗熙  
본지 편집부장

## 올림픽과 몽고리안 시대(時代)

오는 9월17일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가 역사 이래 사상최대로 161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대한민국 서울의 잠실벌에서 성대히 개막될 예정이다.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인류의 공통된 희망이 결집되어 이 평화제전이 성공적으로 치루어질 것을 확신한다.

수만년전 옛날 몽고 초원을 무대로 살아가던 민족으로 검은 머리, 노란 피부, 복숭아씨 눈(almond eyes), 평평해진 코, 옹니(shovel teeth), 광대뼈, 태어날 때 엉덩이의 푸른 반점(mongolian spot)을 지니고 있는 이 민족은 유난히도 말을 잘 타는 유목민족으로 좀 더 나은 살 곳을 향해 끊임없는 이동을 시작했다.

동으로, 서로, 남으로 건장한 그들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 떠났다. 동부시베리아로부터 알라스카를 거쳐 남쪽으로 아메리카에 광범위하게 퍼진 그들은 에스키모인, 아메리카 인디안, 멕시코 인디오족으로 인디언들에게서 광주리를 이거나 등에 아기를 업고 다니는 것과

멕시코 원주민사회에 숫대, 장승, 서남(돌무지)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나이아가라(네 가람—four rivers), 아파치(아버지)의 어원이 자못 흥미롭다.

서쪽으로 향한 민족은 구라파인과 동화되어 헝가리, 루마니아 등에서 그 흔적을 볼 수 있다.

게오르규의 소설 「25시」의 영화에서 그들의 모습은 우리와 상당한 유사점을 느낄 수 있다.

백두산을 넘어 내려온 한민족은 사냥 보다는 땅의 소출로 살아가고 싶었다. 가을의 풍성함과 겨울의 안식에 젖어들면서 농경민족화 과정을 겪게 되었다. '그 시대 세계사를 제패한 민족은 그 시대 단백질 섭취량이 가장 많은 민족'이었다는 사실에 이때부터 한민족의 비극은 싹트기 시작했다.

삶의 질(풍요)을 평가하는 데는 소득, 교육수준, 문화생활, 사회보장 등이 중요하겠으나 미국의 경제학자 후리드맨은 '그 나라 국민의 평균 단백질 소비량이 풍요를 가증하는 가장 정확한 척도'라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영국의 처칠수상이 2세 건강을 위해 우유를 먹이라고 강조하지 않았는가? (신복룡교수 「우리 민족의 열광과 몰락」에서)

며칠 후 이 땅에서 개최되는 '88 서울 올림픽대회에서 더 많은 메달을 얻기 위해 많은 젊은이들이 땀을 쏟고 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보다 많은 메달을 따서 '84IA올림픽대회의 환호가 다시 이땅 삼천리 방방곡곡을 흥분의 도가니에 몰아 넣을 수 있는 그 날이 기대된다.

그 옛날 한민족의 영화를 되찾기 위해 우리 국민이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양계인은 소비자들이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먹을 수 있도록 고급의 양계산물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자.

전세계올림픽 참가국 젊은이들중 수만년전 몽고 초원을 무대로 누비던 강건한 유목민족의 후예들이 많이 섞여 있음에 우리 모두 그들을 보다 정성으로 맞아야겠다. '88서울올림픽대회를 계기로 그들이 주체가 되어 다시한번 옛 영화를 찾아서 태평양시대를 뛰어넘어 몽고리안시대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유난히 백색을 숭상하는 백의민족을 중심으로 말이다.

## 전문인력 양성 외면하는 양계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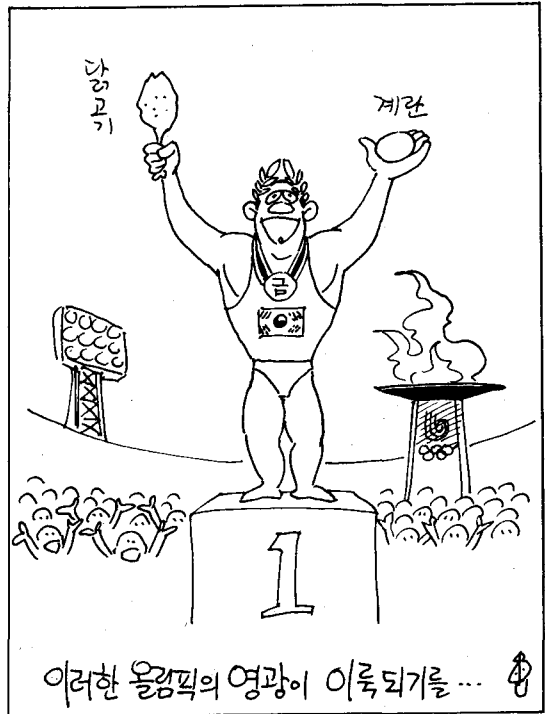
사람의 육구는 5단계로 발전한다. 먹고 입고 자는 생리적 기본육구가 충족되면, 그 기본육구가 지속적으로 보장되길 바라는 안전에 대한 육구로 발전하고, 안전육구가 충족되면 주위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육구로, 다시 존경받고 싶은 명예육구로, 최종단계는 남을 위해 봉사하는 자기실현 육구로 발전한다.

양계업 발전이 정체하는 이유중 하나가 5단계 육구중 양계인들의 개인생활의 안전육구는 충족하되, 더 높은 자기실현(봉사)에 대한 육구를 거부하는 데 있다.

과거 어려움 속에서도 개인사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했으나 수익이 어느 정도 오르면 안일한 자기안전 외에 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나 제도적 학문적 발전에 대한 투자는 외면한 채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심이 팽배해 점차 산업의 질을 떨어뜨리고 양계업을 사양산업화 시키고 있다.

양계산업차원에서 새로운 신진 기술자를 양성하기는 커녕 20여년 양계업에 애정을 갖고 한우물을 외골수로 판 전문양계기술인력을 유관업종으로 보내고 있다.

양계업계의 지도급 인사들은 가용할 인재가 없음을 한탄하며 5년, 10년 후의 비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할 생각에는 전혀 무관심이다. 마치 하루살이가 내일을 걱정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이다.

산업발전을 위한 필요한 인재는 하루아침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양계산업의 희로애락을 피부로 느끼고 속성을 깊이 이해하고 산업의 비전을 제시해 양계업의 보다 높은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중심으로 일할 수 있는 양계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대학, 연구계, 관련업계에 다음세대 양계기술 인력이 점차 줄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과거에 양계는 누구나 쉽게 손을 댈 수 있었다. 기업이나 공무원을 그만둔 후이나, 학교 졸업후 취직을 못해, 농촌에서 농사 수지가 맞지않아 등등 손쉽게 아무나 할 수 있었고 특별한 기술 보다는 시간만 지나면 돈이 되었고 큰소리 치며 행세했다. 이제는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

기술인력도 점차 전문화되어야 한다. 인재는 △양계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숙련도는 △기획, 조직력을 얼마나 발휘하는가 △새로운 상황에의 적응력 △창조적이고 모험적이고 술선력을 발휘하는가 △문제점 파악과 분석능력 △일에 대한 판단, 결정, 수행, 확실성의 정도 △수행하는 일의 양과 질 등에 의해 판단력, 적응력, 창조력, 행동력에 인격과 식견의 자질이

요구된다.

양계업이 사양산업화되지 않기 위하여 더 많은 양계 전문인력을 양계인 손으로 양산해 내야 한다.

## 양계인 조직 활성화

축산업중 가장 먼저 산업화되어 1970년대까지만 해도 양계업은 여타축산업을 선도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선배 양계인들의 피나는 노력(선배 양계인들의 장안동 양계기술강습회, 전국순회강습회 등)과 양계에 뜻을 둔 가금학자들의 자기희생적 기술봉사에서 공과를 찾을 수 있다 하겠다.

양계업은 작금의 사회변화에 가장 우선한 관심의 대상인 민주화와 자율화속에서 철저한 자유경쟁에 입각해 관련산업인 사료, 질병, 축우, 양돈산업 등을 리드하여 왔다.

업계·학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1962년 9월 서울시 축협에서 발기인대회를 가진 한국가금협회(양계협회 전

신)는 지난 30년을 지나오는 동안 양계산업을 선도하며, 업을 꾸준히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렀다. 마당 병아리로부터 출발하여 몇몇 업체는 세계무대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만큼의 양적·질적인 성장을 해온 양계산업을 오늘날 심한 몸살을 앓고 있음은 양계업계 뿐만 아니라 관련업계 축산인들도 심각히 염려해 마지 않는다.

축산발전의 척도인 배합사료 생산실적에서 양계사료 비율은 1970년도 90%, 80년도 54%에 이어 최근에는 30%를 밑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직에 있어서도 계우회연합회, 육계농가안정협의회, 부화협회 등 소망스럽지 못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게다가 채란업을 경영하는 2세 양계인들은 새로운 세대의 양계산업을 부르짖으며 별도의 조직을 가동하고 있다.

조직의 허약성으로 부화·육계업에서는 중개상인에게, 채란업에서는 계란상인조직에게 유통의 주도권을 빼앗겨 전국 각지에서 한심한 작태가 연일 이루어지고 있는 작금의 일들이 이제는 조속히 막이 드리워져야 한다.

계약을 통한 이익집단의 결속이 잘 되는 서양사회나, 의리를 말바탕으로 결속하는 일본사회에 비해 우리는 인연·지역을 통한 소집단단식의 다핵(多核)구조가 발달했다 한다. 오늘부터라도 양계인 공동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구심점으로 모두 모여 불이익을 청산하자.

모든 양계인에 의한, 양계인을 위한, 양계인의 조직 활성화에 다같이 지혜를 짜야 하며 능동적으로 참여하자. **양계**

